부탄재단, 불교유적 자료 아카이브 시작

부디스트도어
7월 16일 활동 보도해

동부부탄의 유적지 보존 일환
보호 관리 · 데이터 취합 전개
차세대 전문가들 교육도 진행

박영빈 객원기자


불교유적을 조사하는 부탄재단 연구원. 사진출처=부탄재단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GNH)를 위해 부탄에 세워진 '부탄재단(Bhutan Foundation)'이 최근 동부 부탄에 산재한 20여 곳의 불교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한 유적 자료 아카이브를 시작했다. 불교 전문 온라인매체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7월 16일, 특별 보도를 통해 부탄재단의 활동을 소개했다.

부탄재단은 1986년 설립돼 2002년 재출범한 국제 비영리 기구다. 부탄재단은 부탄정부의 주요 국책인 GNH의 증진, 부탄의 환경보전과 문화보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부탄재단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2015년부터 주인도 미국대사관이 출자한 '문화보존을 위한 대사 기금(AFCP)' 지원 하에 동부 부탄지역 불교유적지들의 조사와 데이터 아카이빙을 진행하고 있다.

부탄재단 측은 "이 프로젝트는 부탄 문화부와 지역 유지들과 각 사원의 스님들의 협력을 받고 있다. 최근 문화부 소속의 선임 건축가가 이끄는 전문가, 건축가, 연구원 10명으로 구성된 팀이 붐탕 북부에 산재한 20곳의 불교유적지에 대한 현장 조사와 유적지 목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팀에는 또 3명의 전문 여성연구원이 포함돼 주목을 끌었다. 재단은 이번 프로젝트는 문화유산의 보호관리 및, 차세대 전문가 교육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부탄재단은 2015년 왕뒤촐링(WangDue Choling) 왕궁을 시작으로 붐탕(Bumthang), 몽가르(Monggar), 타시강(Trashigang) 3개 지구 54곳의 유적지에 대한 단계적 문서화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특히 동부 부탄인 붐탕지역은 현재의 부탄왕조가 시작한 곳으로 부탄의 불교와 역사가 함께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재단은 "문서화되지 않은 유적지들은 대부분 구전과 설화로 역사가 전승되고 있어 중요한 역사적 사료를 상실하거나, 관리의 소홀로 파괴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부탄의 급속한 사회적, 경제적 개발은 유형 및 무형 문화유산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현황에서 유적과 유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후대에 문화를 전달하기 위한 근본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지금껏 부탄은 적절한 데이터베이스와 문화유산 목록을 작성한적이 없었다"며 문서화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부탄 문화부는 작성되는 목록과 자료들을 통해 지속적인 문화유산의 관리를 비롯해, 새로운 문화재에 대한 등록과 지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부탄재단은 앞으로도 유사한 현장조사와 문서화가 몇 달 안에 인근지역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문서화된 20곳의 유적지 중 일부는 7세기경에 조성됐으며, 대부분 유적지는 부탄에 불교가 들어오던 시기에 불교를 전한 스님들이나 역사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日호류지 금당, 가상현실로 만나다

쇼토쿠 태자 원적 1400주년
특별전 중 프로그램

도쿄국립박물관에 VR장치
금당 내 장엄 디지털 재현


VR구현을 위해 호류지 금당을 실측하고 있다. 사진출처=니혼게이자이 신문

607년 창건되어 고대불교사의 중요한 자료로 남아 있는 호류지(法隆寺). 개산조인 쇼토쿠 태자(聖德太子)의 원적 1400주기를 맞이한 올해, 다양한 행사와 특별전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심법당인 금당이 가상현실(VR)로 재현됐다. 특히 이번 가상현실전은 본래의 모습을 판별하기 어려운 부분을 복원하는 등의 노력이 함께 진행돼 눈길을 끈다.

7월 13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 '엑사이트 뉴스' 등은 가상현실로 복원된 금당의 모습을 보도했다.

호류지 금당은 세계최고(最古) 목조건축군인 호류지 서원(西院) 가람의 중심 건물이다. 중앙의 본존불인 금동석가여래삼존상을 비롯해 협시로 모셔진 약사여래상과 사천왕상은 물론, 벽화와 천장의 장엄구들까지 모두 문화재로 지정된 보물고다. 비록 일반 참배객들에게 공개되어 있긴 하나, 현지에서는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주변의 회랑에서 철망 너머로만 예불을 드릴 수 있다.

호류지 측은 쇼토쿠 태자 원적 1400주년을 맞아 도쿄국립박물관에서 개최되는 특별전 '쇼토쿠태자와 호류지'展에 맞춰 금당을 가상현실로 재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도쿄국립박물관, 국립문화재활용센터, 톳판 인쇄주식회사 등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나섰다. 먼저 호류지에서 문화재위원들의 감수 아래 금당 내부의 불상과 벽화, 장엄구까지 모든 공간과 사물들을 대상으로 입체형상 측정 및 초고해상도 촬영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모인 디지털 이미지를 기반으로 가상현실이 제작됐다. 지금까지 유물과 내부에 대한 실측과 촬영은 여러 차례 진행됐으나, 내부의 천장구조를 포함해 장엄구까지 치밀하게 촬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작된 가상현실은 단순히 현재 상태를 측정하고 구현한 것뿐만 아니라, 세월의 경과로 판별하기 어려워진 그림이나 장엄구 등의 복원 재현도 함께 이뤄졌다. 대표적인 예로 금당 내에 봉안된 여러 불상 중 본존의 좌측에 봉안된 약사여래상의 좌대는 조성당시 다양한 색깔로 채색된 그림이 그려져 있었으나 현재는 안료의 박락과 퇴색으로 인해 육안으로는 알아보기가 어렵다. 이에 가상현실의 학술감수를 담당한 도쿄국립박물관의 미타 카쿠유키 주임 연구원이 만든 추정 복원도를 기본으로 원래의 모습대로 재현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가상현실 제작은 1949년의 화재로 소실되어 알 수 없는 벽화들과 불상의 배치, 비단벌레의 날개를 이용해 만든 장엄구 등도 추정 재현해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호류지 금당에 대한 학술적 연구결과들을 가시적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상현실로 구현된 호류지 금당은 '호류지 국보금당-쇼토쿠 태자의 마음'이라는 작품명을 달고 7월 13일부터 도쿄국립박물관 관내극장에서 공개됐다. 쇼토쿠 태자 특별전 기간 동안 상연되는 이번 가상현실 금당에 대해 제작사인 톳판 인쇄사는 "일반적으론 들어갈 수 없는 금당을 생생하기 관람하고, 또 함께 진행하는 특별전을 통해 호류지와 그 관련 문화재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길 바란다"고 제작 의의를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자재공덕회, 대만 코로나 백신 계약 체결

중국과 갈등 속 민간단체로 백신 확보


자재공덕회 불자들이 2019년 5월 12일 대만 타이베이 자유광장에서 열린 부처님 탄생 기념식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로이터 통신

'로이터 통신'은 7월 21일 대만 불교단체가 500만회 분의 코로나 백신 구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대만 불교단체는 '자재공덕회'로, 독일 백신 생산 기업 '바이오엔테크'의 중국협업사인 푸싱제약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구입 계약을 체결했다.

협력유통사인 화이자의 이름을 딴 화이자 백신으로 알려진 바이오엔테크 백신의 중국 판권은 바이오엔테크사가 갖고 있으며 바이오엔테크사는 중국 내 판매의 경우 중국 푸싱제약과 협업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대만은 중국 입장에서 정식 국가가 아니기에 이 화이자 백신 구입에 난항을 겪어왔다. 대만 정부 차원에서의 화이자 백신 구입에 중국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하자, 대만 정부는 기업과 민간단체에 백신 구입을 위탁했다.

자재공덕회는 6월 백신 입찰에 나서 정부를 대신에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자재공덕회는 푸싱제약으로부터 확보한 백신을 대만 정부에 기부할 계획이다.

자재공덕회는 페이스북 공식페이지에 올린 성명서에서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백신 판권을 가진 중국 푸싱제약과 계약을 맺었다. 구매한 백신은 대만정부에 기증해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오엔테크사도 성명을 통해 "본사와 푸싱제약은 자재공덕회에 더 많은 백신을 공급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로핑청 대만 내각대변인은 "자재공덕회가 정확한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1500만회 분량이 일괄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대만 정부의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수급 난항 속에 미국은 미국 백신회사인 모더나 백신을, 일본은 자국민 접종에서 제외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기증했다. 대만정부는 중국 측이 백신 확보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민재 객원기자

베트남 승가, 호치민 시에 산소호흡기 기증

호치민시 외 2개 지역에도 기증해


틱 티엔 논 스님이 응우옌 티르 여사에게 다기능 인공호흡기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출처=베트남 플러스

베트남 일간지 '베트남 플러스'는 7월 23일 베트남 승가의 인공호흡기 기부 소식을 전했다. 베트남 불교계를 대표하는 '베트남 승가(VBS)'는 호치민시에 40억 동(우리 돈 2억 원 상당)이 넘는 다기능 산소호흡기 6대를 기증했다.

베트남 승가의 집행위원장 틱 티엔논(Thich Thien Nhon) 스님은 7월 23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응우옌 티르(Nguyen Thi Le) 여사에게 다기능 인공호흡기 기증 의사를 밝혔다.

틱 티엔 논 스님은 "전국 불교계 고위인사들과 불자들의 지원을 받아 구입한 다기능 인공호흡기가 호치민시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지원으로 각 지역 주민들이 이 어려운 시국을 극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베트남 승가 중앙위원회는 호치민시 외에도 베트남 남부 빈 즈엉 성과 롱안 성에도 각각 2대의 다기능 인공호흡기를 기증했다.

인공호흡기를 기증받은 호치민시는, 응우옌 티르의 명의로 "베트남 승가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호치민시를 도와 코로나19 예방과 통제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많은 불교 승려와 불자들이 도시 전역의 병원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의 사투를 자원해 도시를 돕고 있다"며 베트남 승가와 베트남 불교신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베트남 승가의 다기능 인공호흡기 기증은 베트남 불교가 오랜 역사 속에 이어온 국가와의 연대라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승가의 지원을 받은 의료장비로 코로나19 환자들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백문이 불여일견!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78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 78만원